

“유년시절 고향 풍광이 내 작품의 원천”

고향 순창서 첫 전시회 갖는 강남구 작가

순창공립옥천골미술관에서 4월9일까지
초기작부터 대표작 ‘석류’ 등 52점 전시

중학교때 광주 유학 후 ‘40년만의 귀향’
“부모님에 화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 기뻐”
농협양곡창고 리모델링한 미술관도 ‘눈길’

▶‘공간-생명력’



인생을 살다보면 어느 순간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다. 화가들은 전시를 통해 작품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대신 내비치기도 한다. 서양화가 강남구(54)씨에게 순창공립옥천골미술관에서 4월9일까지 열리는 기획초대전 ‘시간속, 풍경을 탐하다’는 여는 전시보다 의미가 더 특별하다.

지난해 4월 개관한 옥천골미술관은 순창에 처음 생긴 미술관이다. 지난 1년간 박남재, 이철량, 강용민 등 지역 출신 작가들 꾸준히 조명했으며 강 작가가 4번째로 초대됐다.

강 작가는 “고향에서 여는 첫 전시라 개인적으로 더 각별하다”며 “특히 순창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에게 화가로서의 아들 모습을 뽐낼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 순창군 금과면 시골마을에서 태어난 강 작가는 중학교 때 가까운 광주로 전학하며 고향을 떠난지 올해로 40여년째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소위 ‘이름을 알린 작가’가 됐지만 순창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추억의 대상이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5년 섬진강미술제에도 참여했던 게 계기가 됐다. 순창 미술계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우연히 고향이야기가 나오며 전시가 추진됐다.

강 작가와 함께 둘러본 230㎡(70평) 규모 전시장에는 대표작으로 꼽히는 ‘석류’시리즈를 비롯해 초창기 추상화, 2000년대 풍경 시리즈 등 작품 52점이 빼곡히 배치돼 있었다. 그동안 30회 가까이 개인전을 열었지만 고향사람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떤 전시보다도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다.

전시장 한편에는 지난 1994년 첫 개인전 때 출판한 추상화 ‘공간-생명력’ 연작을 나란히 배치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강 작가는 100호 크기 20점을 전시하며 완성한 작업량을 보였다. 세월이 지나며 훼손이 된 작품은 하나 둘씩 폐기하고 지금은 2점 밖에 남지 않은 작품이다.

옆에는 ‘풍경’ 시리즈가 걸려 있었다. 30여년간 전업작가 길을 걷게 만든 동력이 된 작품이다. 강 작가는 “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느날 갑자기 작업실에 들어가기가 싫었다”며 “매일 작업실 입구까지 갔다 술을 마시러 가기를 반복하던 중 바람을 쐬러 지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인적이 드문 장흥 시골길을 걸으며 다들 어지지 않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며 “황토길, 물안개 그림을 그리며 다시 작업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풍경’ 시리즈를 시작으로 극사실화 기법으로 화풍을 바꿨다. 공간의 깊이를 담아내기 위해 가까운 거리는 또렷이, 먼거리는 희미하게 표현하며 3차원 느낌을 살렸다. 희미한 원거리는 거친 붓질보다는 에어브러시를 사용했다. 사행작으로 겪으며 찢은 작품은 셀 수도 없다.

한쪽 벽은 매화를 그린 200호 크기 ‘공간-생명력’(2016)과 지난 겨울 매달렸던 100호 크기 신작 ‘석류’(2017)로만 채웠다. 본인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다.

그밖에 ‘해바라기’, ‘목련’, ‘동백’ 등 2010년 이후 작품들을 출품했다. 또 10호 미만 작품들을 앨범형식으로 배치해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강 작가는 “자연을 사랑하며 작품에 담은 작업은 어렸을 적 순창에 살며 봤던 풍경들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고향에서 여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 좋은 작품을 위한 새 캔버스와 물감, 붓들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골미술관(순창읍 남계로 81)은 1970년대 지어진 농협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전체면적 464㎡ 규모로, 1층 전시장, 2층 창작 활동실로 구성됐다. 하얀 벽면과 알록달록한 창틀, 옛 모습을 간직한 지붕이 눈길을 끌며 최근 제 17회 전북 건축문화제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문의 063-650-1638.

/글 사진=김용희기자 kimyh@

‘산자와 죽은자의 미디어 토크톤’

5·18묘지서 미디어아트 진혼제

내일 오후 6시부터

13시간 동안 12명 위로

1980년 5월 광주시 북구 중흥동 옛 평화시장 인근에서 임신 8개월의 23세 최미애씨는 공수부대원에게 총격을 당하며 사망한다. 당시 현장을 지켜봤던 어머니 김현녀씨는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흥동에 거주하며 딸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아가고 있다. 국립5·18민주묘지에서 1980년 5월 희생자를 위로하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제1묘역 최미애씨 묘비를 중심으로 ‘산자와 죽은자의 미디어 토크톤’ 프로젝트(총감독 사유진)가 10일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유진 감독이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의 지원과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국립5·18민주묘지의 후원을 받아 기획했다.

대안영화를 작업하고 있는 사 감독은 지난 2012년 ‘햇살댄스프로젝트 ver.광주’를 진행하며 최씨 이야기를 춤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했다. 당시 한 국무유가 최아름씨는 김현녀씨 앞에서 딸이 된 듯 춤을 추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서로 껴안으며 깊은 인상을 줬다. ‘산자와 죽은자의 미디어 토크톤’은 ‘햇살댄스프로젝트 ver.광주’의 연장선상이다.

최씨를 비롯한 묘비 12기에 각 희생자 유품과 사진, 유가족 인터뷰를 재구성한 영상,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토대로 한 역사 영상물을 미디어 파사드로 투사하는 방식이다.

묘비 사이에서는 진혼 퍼포먼스가 열린다. 춤(한국·현대무용), 비문 낭독, 유가족 증언 낭독, 시낭송, 풍요, 성악 등 예술가 12명이 매시 정각마다 나와 희생자의 넋을 달랜다.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 감독의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감상할 수 있다. 영상은 추후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다.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다. 사 감독은 지난해 광주콘텐츠코리아랩 ‘G.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위에 뽑히며 상금 600만원을 수상했지만 예산이 부족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약 200만원을 더 모을 수 있었다. 원래 묘비 100개를 계획했지만 예산 상 12개로 줄였다.

사 감독은 “묘비를 매개로 희생자 넋을 보듬어주고 유가족 한을 어루만지는 해원의 퍼포먼스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5월18일에는 구 도청에 5·18역사를 담은 영상을 미디어 파사드로 상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춤과 영화를 결합한 ‘시내-댄스’ 장르를 만든 사 감독은 그동안 ‘햇살댄스프로젝트’(2012), ‘피스 인 태백: 눈물의 춤’(2013), ‘제주: 년의 춤’(2016) 등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앞으로 1980년 5월 17~18일 당시 시민군과 진압군 대치 상황을 퍼포먼스로 표현한 90분 장면 영화도 계획하고 있다. 문의 010-5391-1895. /김용희기자 kimyh@



‘산자와 죽은자의 미디어 토크톤’ 프로젝트.

M갤러리 대관안내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 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전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양근리전시회
- 500여점 전시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대형 웨딩홀 준공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고향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